

고전음악의 이해 과제

2016025041 소프트웨어전공 하태성

1. 프로그램 음악 vs 절대 음악과 관련하여 감상 소감을 적어오세요.

- 무소르그스키, <전람회의 그림> : 처음에 이 음악을 들었을 땐 지금까지 들어왔던 고전음악, 교향곡, 협주곡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. 뭔가 강렬하고 틀이나 전통에서 벗어난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음악의 본질은 음악 그 자체에 있다는 절대 음악이라는 느낌보다는 단순히 음악 이외에 작곡가가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음악을 들으면서 링크된 영상을 따라가니 그림과 함께 제목들이 덧붙여서 나오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후 추가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사를 더 해보니 이 곡은 러시아 5인 작곡가 중 한 사람 무소르그스키의 친구 빅토르 하르트만이 죽고그의 유작 전시회가 열렸을 때 그 곳에 있는 그림 10점을 골라 묘사한 모음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림 사이를 돌아다니는 무소르그스키의 모습과 심정이 중간 중간 삽입되어있는 프로그램 음악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각각의 그림을 담은 각각의 곡에서 제각각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림스키-코르사코프, <세헤라자데> : 림스키-코르사코프는 <왕벌의 비행>을 만든 작곡가로 알고있었습니다. 이 곡을 들었을 땐 현악기가 초반에 연주되면서 평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별다른 위기나 절정없이 쭉 평온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. 중간에 클라리넷과 작은북?의 연주가 나올 땐 발랄?하고 경쾌하고 가볍고 톡톡튀고 반짝이는 느낌이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후반부에선 현악기가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하프와 관악기 연주에서 신비한 느낌도 약간 받았습니다. 이 곡 또한 음악 그 자체, 기교 등을 중시하기 보단 무언가 스토리를 담고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관악기나 현악기가 나올 때 주제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 후 이곡을 검색해보니, 흔히 잘 알려져있는 “아라비안나이트”, 혹은 “천일야화”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특히 링크되어있는 3악장이 왕과 세헤라자데의 사랑을 묘사하는 곡임을 알고나니 좀 더 이 곡의 분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
- 스메타나, <나의 조국> 중 몰다우 : 초반부 현악기 연주를 들으면서는 웅장하고 무언가 울컥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초중반부에선 부드러우면서도 리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다 느낌이 바뀌고 관악기? 연주가 들고오기시작한 후로는 잔잔하고 물흐르는듯한 부드럽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 다시 현악기가 들어오면서 점점 웅장해지고 격해지면서 절정을 이룬 후 당당하고 힘찬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되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후 따로 조사를 또 해보니, <나의 조국>은 6개의 교향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음악이면서 조국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왠지 곡의 분위기가 주제와 잘 어울리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교향시 몰다우는 몰다우강이 시원으로부터 시내와 합쳐서 강이되어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여름방학때 유럽을 가서 체코를 갔을 때 몰다우강을 실제로 봐서 그런지 더 와닿고 잘 이해가 되는것 같았습니다.